

물리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Physical Therapists Social Distance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Sociodemographic, Experience Characteristics

김기전*, 송브라이언빙**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치료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Ki-Jeon Kim(cesspool@hanmail.net)*, Brian Byung Song(songbh@dankook.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재활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기지역 8곳을 선정하여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 종교, 근무연수, 주변인 장애유무, 주변인 장애 유형 별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각 정도는 사회적 거리감(5점만점 평균 3.47점)과 하위 요인인 신체적 거리감(5점만점 평균 3.77점), 대인적 거리감(5점만점 평균 3.17점)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p<.05$), 근무연수가 많을수록($p<.05$), 남성에게서 사회적 거리감이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대인적 거리감에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셋째, 접촉요인에서 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른 신체적 거리감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마지막으로, 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연령은 정적,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근무연수와 연령의 정적 상관, 성별과 종교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의 질과 기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치료사를 대상으로 임상 초기부터 장애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물리치료사 | 장애인 | 사회적 거리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distance that physical therapists in rehabilitation clinics have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y. The subjects were 146 physical therapists at 8 sites in kyunggi provinces, investigated the social distance of the subjects by gender, age, religion, working years, circumstantial disor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social distance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the physical therapists showed relatively intimate perceived by the social distance and the sub-factors, physical distance and interpersonal distance. Second, they showed close social distance to the disabled when they had sex, age, working years, and showed close interpersonal distance to the disabled when they had male. Third, the subjects with disabled friends showed close physical and social distance to the disabilities.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ge of the physical therapist and the social distance to the disable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years of work and the age, sex. Based on these results, interactions with disabled person affect the positive cognition toward disabil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therapist to chang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disabled person positively through improvement of the cognition of the disabled and direct experience with the disabled from the beginning of the clinic.

■ keyword : | Physical Therapists | Disabled | Social Distance |

1. 서론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00년도 145만 명에서 2013년 250만 명으로, 13년 동안 무려 58%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인구(50,219,669명) 대비 약 4.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1]. 이렇듯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현대 사회 고령화,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산업 재해 및 교통사고 증가, 장애 유형 확대, 각종 회귀난치질환 증가 등으로 향후 장애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2].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직업군은 장애인과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 따라서 이 개념은 장애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소 장애인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와 같이 사고나 감정, 신념 등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그들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4]. 그래서 편견이나 차별이 행동에 반영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수용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사회적 거리감 연구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실제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Ford[6]은 우호적인 환경에서의 접촉은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지만, 비우호적 환경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긍정적인 접촉이 언제나 편견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미옥[7]은 접촉과 관련하여 친구나 가까운 주변인 중에서 장애인 유·무, 자원봉사경험, 장애인접촉 유무에 따라서 장애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지수[8]와 정선영 외 [9]의 연구에서는 접촉경험 변수는 태도의 인지적 측면보다는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과 접촉의 내용, 문화적, 사회구조적 맥락 등에 따라 접촉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0].

이렇듯 장애인과의 접촉이 긍정적,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접촉의 질, 접촉 시의 정서적 반응 등 접촉의 내용이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 연구는 재활 기관 직원들의 일반인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보고되었고[11], Jung과 Kim[12]은 동일한 의료 현장이라도 역할 관계에 따라 간호사 집단의 의사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재활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13], 응급구조 전공자[14], 작업치료 전공 학생[15], 물리치료 전공 학생[16]들의 연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한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활서비스의 주체이면서 장애인과의 접촉을 주로 이루어지는 임상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임상에 있는 치료사들은 장애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며 장애인들의 치료에 대한 반응, 재활 효과, 사회로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의 추체인 임상에서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관련 의료 전문가 집단인 물리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 정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료사들의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선행연구[16]을 바탕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지각 정도와 신체적 거리감, 대인적 거리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문가 집단인 물리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확립과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재활병원(4개) 및 대학병원(2개), 종합병원(2개) 총8개 병원을 임의 추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을 위해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146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종교, 근무경력, 주변 장애인 유무, 주변 장애인 유형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7부가 배포되었으나 이중 실습생 응답 51부와 무응답 및 유실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46부가 활용되었다. 설문지의 조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 평가도구 및 측정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12개 문항으로 두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장애인과 신체적 교섭의 허용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적 거리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장애인에 허용된 친근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인적 거리감이다. 신체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Westiel[18]의 거리감 측정문항을 송관재 외[18]가 번안으로 사용한 것으로 김미옥[7]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적 거리감 척도는 나간채[20]가 직업 계층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 중 각 문항의 척도치와 의미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송관재 외[19]가 선별하여 사용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	신뢰도
신체적 거리감	신체적 교섭의 허용 정도	1, 2, 3, 4, (5), (6)	.885
대인적 거리감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친근성의 정도	7, 8, (9), 10, (11), 12	.856
계		12	.920

()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였으며 역 채점한 문항을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를 설정하고, 접촉요인으로 근무연수, 주변 장애인 유무를 설정하였으며, 인식요인으로 거리감 지각정도를 설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통계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Tukey HSD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α)은 .05로 정하였다.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연구대상자는 남자는 71명(48.6%), 여자는 75명(51.4%)이었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는 16명(11.0%), 25-29세는 49명(33.6%), 30-34세는 40명(27.4%), 35-39세는 25명

(17.1%), 40세 이상은 16명(11.0%)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 11명(7.3%), 천주교 27명(18.5%), 기독교 39명(26.7%), 무교 68명(46.6%), 기타 1명(0.7%)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서 임상 경험 3년 미만 42명(28.8%), 3년-5년 미만 28명(19.2%),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2명(28.8%), 10년 이상 34명(23.6%)으로 나타났다. 주변 장애인 유무에서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11명(7.5%), 친구 중에는 7명(4.8%), 이웃 중에 19명(13.0%), 직장 동료 중에는 19명(9.8%), 친척 중에는 31명(21.2%)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6)

Variable		N(%)
Sex	M	71(48.6)
	F	75(51.4)
Age	20-24	16(11.0)
	25-29	49(33.6)
	30-34	40(27.4)
	35-39	25(17.1)
	≥40	16(11.0)
Religion	Buddhist	11(7.3)
	Christian	27(18.5)
	Catholic	39(26.7)
	Atheist	68(46.6)
	Others	1(0.7)
grade	less than 3 years	42(28.8)
	3 years to 5 years	28(19.2)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42(28.8)
	More than 10 years	34(23.3)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y	Yes	11(7.5)
	No	135(92.5)
Friends with disability	Yes	7(4.8)
	No	139(95.2)
Interaction	Yes	20(13.7)
	No	126(86.3)
Colleague at work with disability	Yes	19(13.0)
	No	127(87.0)
Relatives with disability	Yes	31(21.2)
	No	115(78.8)

Mean±SD

2. 거리감 지각 정도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지각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치료사가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신체적 거리감은 3.77점, 대인적 거리감은 3.17점으로 신체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대인적 거리감 순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거리감 지각 정도

variables	M(SD)
Social distance	3.47(0.32)
Physical distance	3.77(0.44)
Interpersonal distance	3.17(0.30)

Mean±SD

3.3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연령에 따른 거리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신체적 거리감은 25-29세보다 40세 이상인 경우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6, p<.036), 대인적 거리감은 20-24세 보다 30-34세, 20-24세 보다 40세 이상에서, 25-29세 보다 30-34세에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2.28, p<.030). 또한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25-29세 보다 40세 이상에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99, p<.020).

표 4.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variables	N	Physical distance		Interpersonal distance		Social distance	
		M(SD)	F p	M(SD)	F p	M(SD)	F p
20-24a	16	3.77 (0.40)		3.05 (0.26)		3.41 (0.25)	
25-29b	49	3.68 (0.47)		3.05 (0.26)		3.41 (0.25)	
30-34c	40	3.79 (0.43)	1.26 .036	3.24 (0.26)	2.28 .030	3.52 (0.31)	
35-39d	25	3.81 (0.38)	b < e*	3.20 (0.36)	a < c* b < c*	3.50 (0.29)	1.99 .020 b < e*
≥40e	16	3.94 (0.43)		3.27 (0.27)		3.60 (0.28)	

Mean±SD, *p<.05
사후검정은 Tukey HSD의 방법으로 하였음

4.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장애인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적 거리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표 5. 성별에 따른 거리감

Variables	Male (n=71)	Female (n=75)	T	P
Physical distance	3,80(0,40)	3,74(0,47)	.730	.467
Interpersonal distance	3,25(0,29)	3,10(0,30)	3,022	.003*
Social distance	3,52(0,30)	3,42(0,33)	1,955	.053

Mean±SD *p<.05

5. 종교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종교에 따른 거리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신체적 거리감, 대인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에서 기타 종교를 가진 치료사가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은 치료사에 따른 거리감 점수로 종교 간에 있어 거리감 지각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6. 종교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Variables (N)	Physical distance	Interpersonal distance	Social distance
Buddhist (N=11)	3,57(0,52)	3,09(0,35)	3,33(0,42)
Christian (N=27)	3,82(0,40)	3,24(0,30)	3,53(0,30)
Catholic (N=39)	3,79(0,41)	3,18(0,32)	3,48(0,27)
Atheist (N=68)	3,76(0,45)	3,14(0,29)	3,45(0,32)
Others (N=1)	4,33	3,67	4,00

Mean±SD

6. 근무연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근속연수에 따른 거리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근무연수에 따른 거리감은 3년 미만인 경우 3.41점, 10년 이상인 경우 3.56점으로 근무연수가 많은 치료사 집단이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53, p<.045).

표 7. 근무연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Variables	N	Physical distance			Interpersonal distance			Social distance		
		M(SD)	F	p	M(SD)	F	p	M(SD)	F	p
Less than 3 years a	42	3,71 (0,46)			3,12 (0,33)			3,41 (0,34)		
3 years to 5 years b	282	3,70 (0,44)			3,16 (0,27)			3,43 (0,31)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c	42	3,80 (0,39)	1,12	.341	3,15 (0,26)	1,33	.267	3,48 (0,31)	1,53	.045
More than 10 years d	34	3,87 (0,39)			3,26 (0,34)			3,56 (0,29)		

Mean±SD *p<.05

사후검정은 Tukey HSD의 방법으로 하였음

7. 장애인 유무와 주변의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주변 장애인 유무에 따른 결과는 [표 8]과 같다. 주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체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장애인이 없는 경우 대인적 거리감에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8. 장애인 유무에 따른 거리감

Variables	Yes (n=58)	No (n=88)	T	P
Physical distance	3,81(0,41)	3,75(0,46)	.790	.431
Interpersonal distance	3,13(0,29)	3,20(0,31)	-1,291	.199
Social distance	3,47(0,30)	3,47(0,33)	-.079	.937

Mean±SD

8. 접촉요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비교

주변의 친분관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친분관계에서 장애인 친구유무에 따른 신체적 거리감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9. 친분관계에 따른 거리감의 차이

variables	n	Physical distance		Interpersonal distance		Social distance	
		M(SD)	t	M(SD)	t	M(SD)	t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y	Yes:18	3.74 (0.44)	0.28	3.25 (0.31)	-1.15	3.50 (0.35)	-0.36
	No:175	3.78 (0.44)		3.16 (0.31)		3.47 (0.32)	
Friends with disability	Yes:11	4.12 (0.38)	-2.66*	3.22 (0.38)	-0.63	3.67 (0.31)	-2.13*
	No:182	3.75 (0.44)		3.16 (0.31)		3.46 (0.32)	
Interaction	Yes:24	3.82 (0.40)	-0.56	3.08 (0.30)	1.40	3.45 (0.31)	0.29
	No:169	3.77 (0.45)		3.18 (0.31)		3.47 (0.33)	
Colleague at work with disability	Yes:19	3.87 (0.34)	-1.03	3.12 (0.30)	0.66	3.50 (0.25)	-0.38
	No:174	3.76 (0.45)		3.17 (0.32)		3.47 (0.33)	
Relatives with disability	Yes:44	3.81 (0.47)	-0.55	3.13 (0.30)	0.87	3.47 (0.32)	0.04
	No:149	3.76 (0.43)		3.17 (0.30)		3.47 (0.32)	

Mean±SD * $p < .05$

9. 치료사와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

치료사와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인적 거리감과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 연령은 정적으로($p < .05$), 성별은 대인적 거리감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p < .05$). 또한 근무연수는 연령과 장애인이 이웃 중에, 직장동료 중에 있는 경우 정적 상관이 있었다($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근무경력과 $r = .84(p < .01)$, 이웃 중에 장애인 있는 경우와 $r = .24(p < .01)$, 직장동료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r = .21(p < .05)$, 대인적 거리감과 $r = .21(p < .05)$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감과 $r = .20(p < .05)$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근무연수와 $r = -.32(p < .01)$, 대인적 거리감과 $r = -.24(p < .01)$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근무경력에 따른 연령과 $r = .84(p < .01)$, 이웃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r = .18(p < .05)$, 직장동료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r = .16(p < .05)$, 사회적 거리감과 $r = .16(p < .05)$ 정적 상관이 있었다.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과 $r = .16(p < .05)$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검증을 바탕으로 치료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접촉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R^2 는 .205이며, F값은 6.311($p = .000$)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정된 변인들 가운데, 연령($t = 2.512$, $\beta = .205$), 성별($t = -.051$, $\beta = -1.010$), 종교($t = 1.024$, $\beta = .086$), 근무경력($t = 2.060$, $\beta = .169$), 장애인유무($t = .278$, $\beta = .023$)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주변 장애인 유형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0. 사회적 거리감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연령	1												
성별	-.42**	1											
종교	-.25**	.06	1										
근무연수	.84**	-.32**	-.19*	1									
장애인유무	-.07	.02	.01	-.07	1								
가족 중에	.01	.01	-.01	.02	-.27**	1							
친구 중에	-.02	.02	.09	-.01	**	-.06	1						
이웃 중에	.24**	-.05	-.12	.18*	-.49**	.03	.19*	1					
직장동료 중에	.21*	-.15	-.03	.16*	-.47*	.19*	.01	.20*	1				
친척 중에	.03	-.09	-.09	.03	-.64**	.10	.04	.28*	.24*	1			
대인간 신체적	.15	-.06	.05	.14	-.06	-.03	.16*	.12	.09	.06	1		
대인간 사회적	.21*	-.24**	-.02	.14	.10	-.01	.06	-.06	-.06	-.11	.43*	1	
사회적 거리감	.20*	-.16	.03	.16*	.01	-.03	.14	.04	.03	-.01	.90*	.78**	1

* $p < .05$ ** $p < .01$

표 1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구분	B	β	t
인구사회학적 요인	상수	3.316		48.319
	연령	.056	.205	2.512
	성별		-.091	-1.010
	종교		.086	1.024
접촉요인	근무경력	.048	.169	2.060
	장애인유무		.023	.278
주변장애인	가족중에		-.030	-.361

유형	친척중에		-.019	-.233
	이웃중에		-.009	-.110
	친구중에		.150	1.848
	직장동료중에		-.014	-.162
$R^2 = .205$ $F=6.311$ $p=.013$				

IV. 고찰

본 연구는 임상에서 재활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 정도를 알아보고, 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재활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과 같은 경험적 특성 변인과 주변 장애인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예비치료사 47명과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장애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장애인에 허용된 친근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인적 거리감과 장애인과 신체적 교섭의 허용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적 거리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신념이나 생각, 혹은 감정적 요인으로서의 대인적 요인과 행동적 측면에서의 접촉변수와 자존감과 같은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사가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7점, 신체적 거리감은 평균 3.77점, 대인적 거리감은 3.17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이 나타났다. 선행연구[17]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지각 정도 평균이 사회적 거리감이 3.89점, 신체적 거리감이 3.76점, 대인적 거리감이 4.02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치료사가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지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관련전문가간의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종남[21]의 연구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활동 대상, 장애인 가족, 친지)은 친교의 거부나 접촉시의 긴장요인과 같은 감정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와는 달리 치료적 활동이 감정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단정 짓을 수 없다. 앞으로 감정

적 차원에서의 치료적 접근과의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 대인적 거리감에서 20-24세보다 30-34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도 20-24세보다 40세 이상 치료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태도가 적다는 [22][23]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 이 지수[8]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와 유사하였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접촉경험이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ord[6]의 연구에서 우호적인 환경에서의 접촉은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지만,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거리감이 가까워지지 못한 것은 20대 후반과 30대에서의 환자의 접촉변인 이외에 사회적 상황과 직장 내 조직에 문화, 사회구조적 맥락 등 요인들이 작용함에 따른 접촉의 효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Yoon[24]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여성이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이 긍정적[14][15]이거나 남성이 긍정적[25],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26][27]는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이 본 연구에서의 결과만을 토대로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으며 성별 요인은 집단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상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 경험이 우호적인 인식으로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수영[23]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Song과 Kim[27]은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 연구와 Yucker[28]의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접촉요인으로 근무연수를 통한 장애인을 치료한 경력을 비교한 결과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거리감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8][10][23]에 따르면 접촉경험의 변수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행동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게 느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미옥[7]은 접촉과 관련하여 친구나 가까운 주변인 중에서 장애인 유·무, 장애인 접촉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송관재[29]에서는 신체적 거리감의 경우 자신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때 해당 오점보유자들을 더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송관재 외[29]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변인에 대상자가 있을 때 신체적 거리감을 더 가깝게 지각하였고, 오히려 접촉의 경험이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만들었다. 단순히 접촉경험과 빈도수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접촉은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고정관념이 증가하여 편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3][30].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접촉기간 보다는 접촉의 내적인 질이 중요함을 볼 수 있으며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긍정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 치료사의 연령과 근무경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성별과 종교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접촉요인에서의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난 것은 김미옥[4]과 이지수[8], 감상학[31]의 접촉 경험이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접촉요인에서 주변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김미옥[4]의 연구에서 주변인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치

료사에게 있어 접촉요인 중에 주변인의 영향보다는 근무경력 및 연령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접촉요인이 더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검증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접촉요인, 주변장애인 유형 변인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결과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결국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7][8][23][29][31]에서 보여주듯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측면과 접촉이나 경험, 주변 장애인 유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관련 요인들과 함께 그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경우 그러한 접촉이나 경험, 인구사회학적 요소만으로는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의 치료사로서 접촉여부나 경험의 빈도 못지않게 장애인과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경험 혹은 좋은 관계형성을 선행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공 학부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노력과 우호적인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임상에서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나름의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하겠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과의 우호적인 접촉의 기회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임상에서 재활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보기 위해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경기지역 8곳을 선정하여 성별, 연령, 종교, 근무연수, 주변인 장애유무, 주변인 장애 유형 별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각 정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하위요인인 신체적 거리감, 대인적 거리감에서 비교적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남성에게서 사회적 거리감이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 남성이 대인적 거리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와 주변에 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접촉요인에서 장애인 친구유무에 따른 신체적 거리감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간의 상관관계에서 연령은 정적,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근무경력과 연령의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연구가 일부 지역의 치료사에 한정되어서 모든 임상에서 재활을 담당하는 치료사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료 전문가인 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리감 지각 정도와 신체적, 대인적 거리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임상에서 장애인과의 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속에서의 장애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행동의 변화와 인지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여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교육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 수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임상 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특정 연령과 성별, 근무연수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공 학부과정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교육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kosis.kr/nsportalStats0102Body.jsp>
- [2] 권말숙, 이정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3667-3674, 2014.
- [3] C. Lauber, C. Nordt, L. Falcató, and W. Rössler,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toward people with the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27, No.1, pp.289-303, 2004.
- [4] 김미옥,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요인 및 극복 대안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5권, pp.138-167, 2003.
- [5] W. Schönpflug and U. Schönpflug, *Psychologie. Psychologie Verlags, Union*, 1982.
- [6] W. Scott Ford, “Favorable Intergroup contact may not Reduce Prejudice: Inconclusive Journal Evidence, 1960-1984,”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70, No.4, 1986.
- [7] 김미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4권, pp.99-126, 2002.
- [8] 이지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지역발전연구*, 제4권, 제2호, 2004.
- [9] 정선영, 공미리아, “통합교육환경하의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및 통합교육 환경인식에 대한 변화 비교연구,” *정서·행동 장애연구*, 제20권, 제3호, pp.207-233, 2004.
- [10] 박윤경,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1] G. H. Choi, “Attitudes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6, No.4, pp.119-136, 2012.
- [12] H. K. Jung and M. H. Kim, “Attitude of Physical and Nurses Toward with Disabled

- Person,” Korean J Rehabil Nurs, Vol.7, No.2, pp.213-219, 2004.
- [13] 락정숙, 김윤정, 우승희, “치위생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pp.241-247, 2009.
- [14] K. S. Choi, “EMT-Paramedic student’s Attitude to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15, No.2, pp.85-99, 2011.
- [15] C. Jang and H. S. Shin, “Study on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s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ol.8, No.3, pp.317-326, 2013.
- [16] 오정림, 손호희, 김기열,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425-432, 2016.
- [17] 고순희, *비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8] F. R. Westie, “Negro-white Status Differential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17, No.5, pp.550-558, 1952.
- [19]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7권, 제1호, pp.119-136, 2001.
- [20] 나간채, *직업집단간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21] 이종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2] 김정남, 서미경,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3호, pp.589-607, 2004.
- [23] 송수영,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4] Y. M. Yoon, “Attitude Towards with People Disabilities and Improvement Desire for Campus Welfare Environment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Development, Vol.37, No.2, pp.81-96, 2012.
- [25] G. J. Oh, “The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0, No.1, pp.811-820, 2001.
- [26] H. W. Lee and W. R. Lee, “The Study of Attitude toward Disability of Persons without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3, No.5, pp.471-492, 2004.
- [27] S. Song and J. M. Kim,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acceptiv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9, No.1, pp.83-99, 2008.
- [28] H. E. Yuker, “Variable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Conclusions form the data,”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9, No.5, pp.3-22, 1994.
- [29] 송관재, 김범준, 홍영오, 이훈구,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pp.123-141, 1997.
- [30] G. W. Allport, “The Teaching-Learning Situation,” Public Health Sep, Vol.68, No.9, pp.875-879, 1953.
- [31]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7권, pp.169-206, 2004.

저 자 소 개

김 기 전(Ki-Jeon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14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4년 4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치료팀 근무
- 2014년 8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소아재활, 호흡재활, 선천성 기형

송 브라이언병(Brian Byung Song)

정회원



- 1992년 : 로마린다대학교 학사
- 1993년 : 로마린다대학교 석사
- 1997년 : 로마린다대학교 박사
- 1997년 3월 ~ 2001년 8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 2001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주임교수

<관심분야> : 인체역학, 노인재활, 신경외과재활